

'담배 없는 건강도시 강서' 앞당긴다...금연클리닉 확대 운영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흡연율을 줄이고,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해 '담배 없는 건강도시 강서' 구현에 나선다.

질병관리청 '2024년 지역사회 건강통계'에 따르면, 강서구 흡연율은 14.8%로 2023년에 비해 3.6%p 감소했으나, 흡연자 금연 시도율은 36.2%로 2023년 대비 5.1%p 줄어 지속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구는 흡연 관련 건강 피해를 줄이고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연중 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

금연클리닉은 직장인·청소년 흡연자를 대상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강서구보건소(공항대로 561)에서 진행하며, 직장인 편의를 위해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추가 운영한다.

대상자 등록 시 전문 금연상담사가 6개월간 1:1 맞춤 관리를 진행한다. 니코틴 의존도 검사, 금연 교육,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 등) 지원 등 체계적인 금연 서비스를 지원하며, 6개월 금연 성공 시 기념품도 제공한다.

시간·공간 제약으로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도 운영한다. 사업장, 아파트,

복지관, 학교 등에서 신청 시 금연상담사가 방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동 금연클리닉은 지난해 한국공항공사, 티웨이항공 등 총 22개소에서 운영했으며, 올해는 흡연 민원이 많은 마곡 업무지구 사업장을 중심으로 방문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흡연은 각종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혼자서 금연을 시도하기보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이라며, "새해를 맞아 주민들의 금연 실천을 돋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골든타임 잡는다...AI가 실종자 동선까지 추적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AI 기술을 활용한 '실종자 고속검색시스템'을 구축해 흡족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구민 생활안전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실종자 고속검색시스템'은 AI를 활용해 주변 CCTV 영상 속 인물의 특징을 자동으로 검색·추적하는 기술이다. 실종자의 인상착의 등 기초 정보를 입력하면, AI가 마지막 포착 지점부터 이동 경로를 신속하게 분석해 실종자 발견 가능성을 높인다.

구는 이번 사업을 서울시 공모를 통해 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실종자 고속검색시스템'을 영등포통합관제센

터에 구축했으며, 지난 12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구는 '실종자 고속검색시스템'을 영등포경찰서 상황실과 서울시 스마트도시안전망 서비스와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실종자의 사진과 인상착의 등 정보를 입력해 AI가 영등포 전역의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실종자의 이동 경로를 신속하게 추적한다.

분석 결과는 서울시 CCTV 안전센터와 경찰 112 종합상황실에 자동 공유되며,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보다 빠르고 체계적인 수색 활동을 펼칠 수 있다.

한편 구는 4차 산업시대에 발맞춰 각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디지털 안전도시 조성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노후 CCTV를 고화질 장비로 교체하고, 골목길 등 안전 취약지역에 지능형 CCTV를 신규 설치해 화재, 미야 수사, 응급 상황 등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 대응함으로써 디지털 안전도시를 만들 어갈 계획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AI 기술을 핵심 행정 수단으로 활용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며 "지속적인 스마트 기술 발굴과 현장 적용을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영등포를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시민은 구가 접수되면 실종자의 사진과 인상착의 등 정보를 입력해 AI가 영등포 전역의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실종자의 이동 경로를 신속하게 추적한다.

분석 결과는 서울시 CCTV 안전센터와 경찰 112 종합상황실에 자동 공유되며,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보다 빠르고 체계적인 수색 활동을 펼칠 수 있다.

서초구, 현릉로 보행로 평탄화 완료... '걷기 편한 거리'로 탈바꿈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염곡동 현릉로 일대의 경사진 보행로를 주민이 더 안전하고 편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으로 조성한 '현릉로 내 보행로 평탄화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보행 불편과 도시미관 저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해당 구간은 지역 내 현릉로(염곡동 212-25~212-3) 약 150m 구간으로, 폭 2.5~3.0m의 보행로가 경사지고 노후화되어 보행 불편은 물론 미끄럼 사고 위험이 높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주민의견 수렴 결과 주민 91%가 찬성한 이번 사업은 구의 노력으로 공사비 전액 시비를 확보해 지난해 10월부터 추진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구는 현릉로 일대의 보행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 도시미관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했다. 특히 탑성마을 입구의 경사진 보행로를 철거하고 완만한 경사로를 조성함으로써 이 일대가 주민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걷기 편한 거리'로 탈바꿈했다.

또, 구는 문구조명을 설치하는 등 도

시경관 요소를 더해 아둡고 단조로웠던 보행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현릉로 옆에 서초구를 상징하는 밝고 세련된 서초 문구조명을 설치하고 양옆으로 은은한 빛의 리안조명을 이어 붙여 단순한 보도 정비 수준을 넘어 야간에도 따뜻하고 생동감 있는 길로 재탄생시켰다.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오는 조명 디자인을 통해 보행자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고 운전자에게는 시야 확보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피지컬 AI' 시대 연다...서울, 양재·수서 잇는 로봇 친화도시

'생성형 AI' 넘어 '움직이는 AI'로...CES 2026에서 확인한 피지컬 AI 시대 도래

AI 두뇌는 양재(AI 테크시티), 로봇 실증은 수서(로봇 클러스터)...서울형 피지컬 AI 벨트 구축



를 로봇 연구개발과 실증이 집적되는 로봇·AI 산업거점으로 조성하며, 피지컬 AI 기술이 실제 도시 공간에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수서 공공 주택 지구 안에는 로봇벤쳐타운이 조성된다. 대·중견 기업과 유망 중소·스타트업이 함께 집적되는 자생적 로봇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할 예정이다. 시민이 로봇 기술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로봇테마파크와 로봇과학관 조성도 함께 추진된다.

시는 수서 로봇클러스터 일대를 '로봇산업 특별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 용적률 완화, 세제 지원, 자금 융자 등 혜택을 줄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특정 개발진흥지구 대상지 선정 이후 로봇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2029년까지 로봇 기업을 유치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실물 인공 지능 기반 로봇 기술이 실제로 작동하고 시민과 기업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왔다.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는 총 897억 원을 투입해 2024년 7월 준공된 이후 혁신 로봇 기술 실증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개관 이후 총 47건 실증을 지원했다. 이 중 기업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협업지능 기반 실증이 17건, 숙련 공작업을 로봇으로 구현하는 마이스터 로봇화 실증이 30건이다.

로보티즈의 실외 이동로봇 '개미'는 2024년 서울형 연구 개발 지원 사업(スマート로봇존)에 선정돼 현재 양천구 내 공원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한 로봇 대담 서비스를 실증 중이다.

이장성 기자

세계 최대 IT·전자 전시회 'CES'에서 '피지컬 AI(Physical AI)'가 차세대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인공지능이 단순히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를 넘어, 실제 공간에서 인지·판단·행동까지 수행하는 '움직이는 AI'가 글로벌 산업 전반의 새로운 흐름으로 부상하고 있다.

자동차, 조선, 반도체, 배터리 등 복잡한 공정과 숙련된 현장 데이터가 축적된 제조업 기반을 갖춘 한국은, 피지컬 AI 산업을 본격 육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국가로 평가된다.

이 같은 글로벌 흐름과 산업 환경 변화 속에서, 서울시의 로봇·AI 산업 전략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AI 분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해, 특히 출입국관리 등 관련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AI 기술의 빠른 상용화와 글로벌 인재 유치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서울형 피지컬 AI 벨트의 '두뇌 거점' 역할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서울시는 이미 양재 일대를 중심으

로 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나서고 있다. 기존 서울 AI 허브와 함께,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AI 테크시티' 조성을 본격 추진 중이다. 서울 AI 테크시티는 국내외 연구기관과 AI 기업을 유치해 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고, 문화시설과 주거공간을 함께 조성하는 자족형 복합 혁신 공간으로 계획되고 있다. 현재 양곡도매시장 일대를 대상으로 공간계획을 수립 중이며, 연내 계획 마련 후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2024년 양재동·우면동 일대 약 40만m²를 전국 최초의 AI 분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해, 특히 출입국관리 등 관련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AI 기술의 빠른 상용화와 글로벌 인재 유치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서울형 피지컬 AI 벨트의 '두뇌 거점' 역할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동시에, 서울시는 수서역세권 일대

서울시, 시금고 약정 금리 공개... 예금은행 수신금리보다 높아

금고 운영 아래 약정 금리 공개는 처음, 지난해 12월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개

서울시가 현 시금고와 약정한 금리를 공개한다고 8일 밝혔다. 1금고 기준 정기예금은 3.07%(6개월), 3.45%(12개월), 기업MMDA 3.54%로 한국은행이 밝힌 2025년 11월 기준 예금은행 수신금리 2.81%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번 공개는 지난해 12월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자체 금고 약정 금리 공개의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으로, 서울시가 시금고와 약정 금리를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금고와의 약정금리는 비공개해 왔으나, 이번에 개정된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따라 시금고와 약정금리를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공개하게 되었다.

이는 금고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금고 업무 약정에 따른 금리를 공개하도록 하였다.

서울시는 '22년 신한은행을 시금고(1.2금고)로 지정하여 '23년부터 4년간 시금고 약정을 체결하였고, 약정에 따른 예금 유형별 적용금리(25.12.9. 시행령 시행일 기준)는 다음과 같다.

시는 재정자금을 약정 금리가 적용되는 시금고와의 공금예금(고정금리), 정기 예금(변동금리), 기업MMDA(변동금리) 등 37가지로 관리하고 있고 특히, 유저자금은 규모와 지출시기를 고려해 이자율

이 높은 예금에 선택적으로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유류자금 대부분을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과 기업MMDA 상품에 예치하여 '24년 1,638억원 이자수입(이자수익률 4.07%)을 거둔 바 있다.

시가 공개한 시금고와 약정금리 공개에는 시민과 시민에게 동시에 공개해 시민 누구나 상시 확인할 수 있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시금고 약정 금리 공개를 계기로 보다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시금고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간임대주택 공급 숨통 틀운다...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잇따른 정부 규제로 민간임대주택 공급절벽, 전월세 시장 불안 강화... 서울시, 대책 가동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틀우기로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을 제한, 보증 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 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 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

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열친데 덜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합산세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제성도 떨어졌다. 여기에 내년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 2만 9천 호에 불과해 공급여건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정부 규제로 매매시장은 위축됐고 전세매물 또한 '24년 11월 3만 3천 건에서 '25년 11월 2만 5천 건으로 25% 감소했다. 반면, 전세가격은 작년 10월 0.53%, 11월 0.63%로 9월 0.27% 이후 2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 금융지원 ▲ 건축규제 완화 ▲ 임대인·임차인 행정지원 ▲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 건의 등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등록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비아파트에 양질의 투자 이뤄지도록 하고 민간 임대를 통해 무너진 시장을 되살리겠다고 강력히 밝힌 바 있다.

민간임대사업자가 시장에 신규 진입

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담보인정비율(LTV) 완화, 종부세 합산세 제외 등 세제 혜택의 합리적 조정은 이미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시에서는 오피스텔 건축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개정을 완료하였으며, 금융지원방안 역시 구체화하고 있다.

계획 발표 후 첫 행보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목) 오전 10시 30분 마포구에 위치한 민간임대주택 '뱅글로브 신촌'을 방문해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와 임주 민들을 만나 청년층을 비롯한 1~2인 가구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 민간 임대 활성화 방안 논의에 나섰다. 오 시장은 현장 목소리 청취 후 '민간임대사업자 규제강화는 거주 안정성이 높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져 전월세 서민 주거불안을 높이고 비아파트 공급물량이 감소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1~2인 가구와 청년, 신혼부부의 거주공간인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민간임대사업자 규제완화를 강력히 재차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곳곳이 18만 4000㎡ 신혼설립으로 가득해집니다!

서울 곳곳이 18만 4000㎡ 신혼설립으로 가득해집니다! 미리내집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신혼부부 주거인정을 위해 부담없는 전세가로 주택을 공급하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신혼부부의 신혼집입니다.

서울시가 구해주는 신혼집, 미리내집!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 II)은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하는 신혼부부의 주거인정을 위해 부담없는 전세가로 주택을 공급하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신혼부부의 신